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성지포장산업, 익산제4일반산단 투자협약 체결

익산시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4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성지포장산업과 제4일반산단 투자를 위한 투자협약·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성지포장산업은 익산제4일반산단 1만8천223㎡ 부지에 오는 2023년까지 총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30여 명의 일자리 창출



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성지포장산업은 각종 농산물·공산품 등의 제품 포장 상자를 생산한다

는 기업으로 주요 매출처는 CI 등 식품기업과 농산물 생산업체 및 유통업자 등이다.

지난 2018년도에 익산시 왕궁면에 법인을 설립해 지속적 성장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상자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수요가 확대돼 공장을 확장 이전하게 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포장상자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성실함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장시켜 산업단지로 확장 이전하는 투자를 결정해 주신 데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돋움의 될 수 있도록 익산시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민들이 연말연시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저지를 위한 시민주도 '코로나19 방역띠' 구축에 나섰다

## “방역 수칙 준수 백신접종 동참”

### 익산시민 '코로나19 방역띠' 구축... 연말연시 확산 저지

익산시민들이 연말연시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저지를 위한 시민주도 '코로나19 방역띠' 구축에 나섰다.

최근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시민들의 책임 방역 실천이 중요한 때이다.

이에 익산 14개동 지역의 통리장, 새마을부녀회 등 자생단체, 시민 등 150여명이 참여해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제방역 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조를 나눠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펼쳤다.

또한 각 동 지역의 아파트에 가정 내 방역과 관련된 내용 홍보를 통해 실내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개민방역활동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시민들은 이에 앞서 23일 북부시장을 찾아가 집중방역 활동을 실시했다. 북부시장은 읍면동지역에서 비중이 높아, 코로나19 취약자인 어르신들 보호를 위해 24일 장날에 앞서 빠르게 방역활동을 추진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고 모든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들의 방역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사적모임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 백신접종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익산=이득훈 기자

## ‘2022년은 제26회 황금사자기 우승 50주년의 해’

### 강임준 군산시장, 조계현 전 단장과 군산체육 발전 등 논의

강임준 군산시장이 조계현 기아타이거즈 전 단장, 시의회 우중삼 예결위원장과 함께 황금사자기 우승 50주년을 맞아 군산체육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오는 2022년은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했던 '군산=역전의 명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군산상고가 황금사자기 우승을 이뤄낸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1972년 7월 결승전에서 군산상고가 영남의 강호 부산고등학교를 만나 4대1로 뒤지던 중, 9회 말 5대4로 역전승을 이뤄내며 전 국민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연출한 바 있다.

역전의 명수 군산, 5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2022년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아쿠사 기념관 건립 사업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강임준 군산시장이 조계현 기아타이거즈 전 단장, 시의회 우중삼 예결위원장과 함께 황금사자기 우승 50주년을 맞아 군산체육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있다.

24일 강 시장은 조 전단장, 우 위원장과 함께 제26회 황금사자기 50주년 행사 등 체육관련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조 전 단장은 "어려운 시기에 모교의 황금사자기 우승을 되돌아보며 내 고향 군산이 역전의 명수처럼 활기를 띠는 지역으로 재도약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익산시, 저탄소·친환경농법 선보여 국가식량산업발전 선도

익산시가 기후변화를 대비한 신기술 농업기법을 선보여 정부로부터 식량산업발전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식량산업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우수기관에 선정돼 장과 표창과 함께 포상금 200만원을 받게 됐다.

이는 농림산업 시책 중 생산단계에서 온실가스 저감 기술이 적용된 저탄소·친환경 농법을 활용한 벼 재배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협력해 선도적으로 벼 재배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저탄소 벼 논물관리 시범사업' 추진했다.

벼는 물속에서 자라면서 메탄가스가 일부 발생하는데 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논물관리 방법이다. 즉 재배과정 중 중간물떼기 기간을 기존 2주보다 더 길게 하면서 쌀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간을 토질별로 연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 재배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사업을 횡동농협 수도작 작목반 26농가를 대상으로 100ha를 시범적 실시에도 앞장 섰다.

또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신청하여 동참하였고 GAP 인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전교육도 수료했다.

이를 토대로 벼 논물관리에서 중간물떼기를 3주 이상 실시하고 논물 알개 걸러대기를 실천하여 관행농법보다 온실가스를 최대 60%까지 절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 김현철 군산대 교수, 옥조근정훈장 수훈

군산시는 군산대학교 김현철 교수(융합기술창업학과)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일자리창출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김 교수는 KIA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는 등 자동차산업의 다양한 연구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군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군산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과 노동문제에 대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군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의 사회적 통합,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군산형 일자리 모델 개발에 공헌했다.

또 군산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단장을 맡아 군산 미래차 클러스터 상생협약안을 도출하고 쟁점 사항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등 군산형 일자리 모



군산시는 군산대학교 김현철 교수(융합기술창업학과)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일자리창출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김 교수는 KIA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는 등 자동차산업의 다양한 연구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군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군산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과 노동문제에 대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군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의 사회적 통합,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군산형 일자리 모델 개발에 공헌했다.

또 군산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단장을 맡아 군산 미래차 클러스터 상생협약안을 도출하고 쟁점 사항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등 군산형 일자리 모

## 지역 소식통

### 2022년 군산늘푸른학교 문해교육사 모집 공고

군산시는 '2022년 군산늘푸른학교' 운영을 위해 문해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문해교육사를 오는 2022년 1월 8일까지 우편 접수를 통해 모집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군산늘푸른학교'는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수업 뿐만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및 초·중 등 학력인정반 등 다양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문해교육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다.

또 문해교육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 2)에서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정한다.

군산=한경봉 기자

### 익산 송정제 호수공원 야간경관 명소로 재탄생

익산시 부송동 아파트 도심속 생태공원인 송정제 공원의 밤이 빛을 품은 야간경관 힐링 명소로 재탄생했다.

시는 송정제 공원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산책로로 개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는 사업을 통해 송정제 공원 내 저수지 주변 노후화된 울타리를 LED 조명이 가미된 디자인 울타리로 교체하고 터널 분수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어둡고 캄캄한 저수지 주변 산책로에 야간의 생동감을 불어넣으며 시민들의 인락한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산책로 3곳에 희망과 격려 메시지를 개발해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되는 등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연이은 지역 주력산업 붕괴로 2018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며 지역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 및 지역의 사회적 연대 강화를 도모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수평계열화를 통한 미래차라는 신산업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해 노사간 원하장간 상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